

5. 믿음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

믿음의 정의(定義)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한 것은 곁으로 드러나는 윤법적인 모습이나,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행위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라면, 믿음을 가장한 가장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얼마 전, 초창기 만나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중고등부 시절 제가 지도한 적이 있는 제자 같은 교인들을 만나 심방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천막교회 시절 문학의 밤을 하던 것,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농촌교회를 찾아가 봉사하던 일 등.

그런데 그 친구들이 주장하는 바, 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매를 맞은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린 기억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저를 담임목사로 인정하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자기들이 맞을 짓을 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서 잊혀진 것 같았던 그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눈에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란 나중에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명되는 것지요.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밭을 땅에 나갈 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참 재미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요. “하나님 왜 100살에 주십니까? 90살도 되고, 95살도 되는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한이었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믿음이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지요?

오늘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정의들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기도 하지요. 아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나의 확신이나, 나의 삶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과 결단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우리들의 삶에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원리에 입각하여 믿음의 본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짜 믿음을 알아야. . .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가짜는 진짜 앞에서 빛을 잃게 될 것이며, 진짜는 가짜 속에서 진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몇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덕적 갈등이 없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인 갈등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서 분명한 뜻을 세웠으므로 문제가 없이 평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가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도덕적 인간형이 되고, 은혜 가운데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A. W. Tozer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증생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종종 더 곤고하다. 왜냐하면 그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를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끌고 가려는 힘과 그를 죄로 끌고 가려는 힘이 자기
안에 병존한다는 것을 느낀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자녀요 흙의

아들이다. 이런 도덕적 이중성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심리적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다.“

로마서 7장 21-2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려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양심에서 고동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순간, 그 시점에서부터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성령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 삶의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충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모든 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과 충돌해야 하며, 죄와 싸워야 하며,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기 위하여 투쟁해야하는 것이지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늘 평안하게 갈등이 없이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둘째로, 영적 기형상태는 아닌지. . .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순교자의 각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는 신앙인의 면류관이라고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것을 얼마나 바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박해를 받고, 일부러 순교를 당하는 사람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담대함과 용기가 온유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는 듯하지만, 영적 기형의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례하지 않은지, 나의 영적인 삶과 신앙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신앙과 영성이 드러나기 위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은 없나요?

흔히 일어나는 일 가운데 ‘제사’의 문제들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어른들에게 무례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경멸의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놀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취미

가 없기 때문에, 아니 신앙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끊었다는 자부심으로 인해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았는지 모르지만 [쓴다]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네요.

정직하게 살려는 한 사람의 고뇌,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주인공이 어떻게 자멸해 가는 지를 보여줍니다.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있지요.

나 자신의 영성과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면서, 실제 우리의 모습은 진정한 믿음을 상실한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늘 경계하셨던 부분이 그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 . .”

혹시 여러분은 영적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지시할 때, 그 속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나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도 영적인 성숙함에 다다라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

죄를 무시하거나 덮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랑합니다. 덮어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예배 시간에 불량한 태도로, 억지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조는 사람들을 나의 경건함으로 인해 욕하거나 경멸하기 보다는 사랑하며 기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가끔 예배시간에 떠드는 아이 때문에 민망해 하는 부모들을 봅니다. 물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잘 못시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들고 우는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믿음 있는 영적 경건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앞서 가지는 않나요?

셋째로 진리의 두 날개를 달고 있는지 . . .

영국 런던의 유명한 교회인 웨스터민스터 교회에의 목사였던 캠벨 모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성경의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리의 반쪽만을 아는 사람이다. ‘성경의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저 본문에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이다.”

사실 교회들이 안고 있는 교파간의 분쟁, 교리적인 논쟁들은 대부분이 진리의 한쪽 날개만을

주장하는 완고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을 주장하며 신앙의 균형을 잃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한쪽의 진리만을 주장하므로 한쪽의 진리가 힘을 잃는 것도 심각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완고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돌 같은 내 마음. . .)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바, “유일신”하나님을 주장하며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삼위일체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신앙이 진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간과합니다.

한쪽의 진리만을 고집하는 완고함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겉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조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들이 부딪치고 온 헤를 받는 말씀이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의 신앙을 견고케 해준 말씀이 진리요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떤 말씀이 누군가에게도 역사하는 능력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넷째로, 감정이 없는 믿음은 아닌지. . .

감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감정’이란 이기고 극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감정에 충실해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처럼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이 ‘감정’을 ‘육신의 욕망’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 사전에서 ‘감정’을 이렇게

정의 합니다.

“감정은 마음이 차분한 상태에 있지 않고 강한 느낌에 이끌려서 특정한 행동으로 기울어지는 상태이다.”

그렇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런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들 이지만 때로는 우울한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며, 때로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상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남의 잔치에 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보다는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갓집에 가서 함께 울어주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고, 잔치를 즐기시던 분이십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란 무엇을 보고 경험하느냐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대상을 보고, 잘못된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죄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에 대하여 충실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올바른 믿음 생활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다가 그의 감정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셨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지요.

인간의 감정을 모두 봉쇄하고 마치 감정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흐르는 강을 막으면 강물은 다른 곳으로 흘러서 논과 밭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감정이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억압한다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지도 모릅니다.

다섯째로, 십자가와 징계를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 .

우리가 또 흔히 듣는 말 중에 “내 십자가지. .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순응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부과될 수 없는 것이며, 징계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께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의 길은 외부적인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 지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순종의 길’에서 발견된다면, 징계는 ‘불순종의 길’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 아플 때 우리는 잠시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반면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면 우리가 옳은 길에 있기에 인내해야 하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잘못된 선택이나, 죄를 묵인함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십자가의 길로 오해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있습니까?

그 고통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동의한 일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을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라면 빨리 순종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비난이 그리스도와 의를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것과 관계없는 고난이라면 결코 복된 고난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구별해야 하는 것은 제 3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고난도 아니고, 징계의 고난도 아니고, 자연적인 인간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이러한 때를 만나면 기도와 겸손과 인내로써 역경을 친구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때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발견!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때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국지사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등장합니다. 특히 거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나라를 배신하라고 유혹한다면 그 순간이야 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카오에 있는 김정일의 아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국의 위기와 가난 가운데서도 자신은 호의호식하고 민족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지요.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 마카오에서 그런 생활을 한다고 뉴스거리가 되거나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주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항이 계속되는 동안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누가 바울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의 평범한 외모 위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태풍 ‘유라굴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죄인의 몸으로 배를 타고 있었지만, 태풍 속에서 그는 통제권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단의 순간이 되어서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테스트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의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봉사의 열심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A.W. Tozer는 그의 책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분명한 선을 그으신다. 그리고 그 선의 한쪽에 그 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두시고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두시고.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감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기도 한다.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 . .”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으면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 . .”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말입니다.

몇 주 전 아내와 함께 속초에 있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이 되어 전화를 걸어 깨우려고 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핸드폰도, 집 전화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계속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받지 않자 아내가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신호도 못보고, 좌회전 우회전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서 교회에 있는 강경숙 권사님에게 집으로 빨리 가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분 쯤 지나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야 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런데 얘들은 얼떨결 합니다. 자신들은 이제야 소리를 듣고 전화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전화가 울렸는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얘들이 황당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안타까웠던 부모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순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응답이 없는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몇 주 전 일본의 선교사로 있으며 안식년을 지나고 있는 김광현 선교사님이 수요일 설교를 했습니다. 요나서를 가지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일본을 향한 동일한 마음이라는 설

교를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 이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기를 원하셨지만, 요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요, 그들이 강성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피해가 갈 것이요, 자신들의 신앙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붙잡힌바 되어 니느웨로 갔지만 그의 마음이 그 곳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니느웨를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 3-4절 말씀,**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 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별레를 준비하사 그 박 넝쿨을 씹게 하시니 곧 시들어 죽게 된 것이지요.

해가 뜰때가 되자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그가 너무 더워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1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를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셨던 용서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일본 사람이 그렇게 미운가요?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못할 짓을 한 사람들 그 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1억 2천만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저는 북한에 대한 선교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생각, 이념을 가지

고는 절대로 그 백성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나뉘어서 시위를 하는 순간에, 기독교도 딱 둘로 나뉘어 서로를 비난 하는 순간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슴아파하고, 슬퍼하는 일들, 상처받은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계신 것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 일들인가요?

얼만 전 갈멜살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며 준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 했습니다.

“왜 당신들을 그렇게 절박하게 이곳에 찾아와 부르짖어야 하나요? 당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 당신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대부분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들 일텐데. . .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을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모양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완악함이 깨지고, 여러분들의 자아가 무너지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